

滄溟 南詔의 挽詩 考察

김묘정*

|| 차례 ||

- I. 머리말
- II. 滄溟의 삶과 挽詩 개관
- III. 滄溟 挽詩에 드러난 애도의 형상화 양상
- IV. 맺음말

【 】

이 글은 滄溟 南詔의 挽詩에 대한 첫 연구로 애도의 형상화 양상을 검토하여 그 의미를 밝히고자 기획한 것이다. 그에 따라 선차적으로 小北八文章 중 한 명인 창명의 삶을 대략적으로 조명하였고, 창명의 시 전반을 차지하는 挽詩를 개관함으로써 그의 시세계 일면을 밝혀냈다.

또한 滄溟 挽詩에 드러난 특징을 고찰하였는데 크게 세 가지 면모를 보임을 확인하였다. 첫 번째는 사적 기억의 서사적 전개 양상으로 경험적 서사를 다채롭게 활용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풍경 차용이라는 형상화 방식을 통한 애도의 감정 진솔로 정서의 확장을 추구했다는 점이다. 세 번째로는 위안의 시상 종결 방식을 통한 슬픔 극복 양상으로 망자의 넋을 위로하며 시상을 맺는 특징이 포착된다.

창명의 만시는 기본적으로 사적 기억을 바탕으로 구성되었기에 진실성을 구비했으며, 획일화된 비애감 표출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풍경을 시에 이입시켜 표현함으로써 만시의 상투성을 극복했다. 또한 사적 기억에서 추출한 망자의 삶을 바탕으로 하여 위안적 종결 방식의 여부가 결정되었기에 다양한 층위의 만시가 창작되었다.

주제어 : 창명 남선, 소북, 소북팔문장, 만시, 진실성, 상투성 극복

* 단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I. 머리말

挽詩는 사람의 죽음을 슬퍼하고 망자를 애도하기 위해 짓는 문학작품이다. 슬픔을 나누는 이들은 자신의 기억 속에 망자를 지속적으로 현존시키고자 하고, 작가는 망자를 오래도록 회상시키고자 함으로써 만시는 전세기를 망라하여 지속되어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만시는 특유의 儀禮的인 면모 때문에 연구 대상에서 차치되었다. 창명의 시문학 전반을 대략적으로 다룬 남윤수¹⁾의 선행 연구에서도 의례적인 시로는 지은이의 본령을 알 수 없다고 하여 연구 대상에서 만시를 제외했기에 창명의 만시 작품은 지금까지 전혀 논의된 바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만시는 작가의 시각으로 그려낸 슬픔의 구도이므로 오히려 작가의식이 투철한 장르라고 할 수 있으며, 작가의 문학적 역량에 의해 질적 성취 정도가 결정되기에 한 작가의 시세계를 살펴보기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창명의 시 작품은 153수 가운데 118수가 만시이기에 더욱 더 면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따라서 필자는 이 글에서 창명 만시의 특징과 애도의 형상화 양상을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더 나아가 일반적인 만시와 창명 만시의 차별적 지점을 고찰하도록 하겠다.

만시를 살펴보기에 앞서 필자는 滄溟의 삶을 대략적으로 조명해 보는 작업을 선행하고자 한다. 小北에 관한 연구가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바 없어 창명에 대한 연구 역시 미비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소북계 문인인 滄溟 南翎(1609~1656)은 沈癘(1597~1649), 姜柏年(1603~1681), 任翰伯(1605~1664), 朴守玄(1605~1674), 鄭昌胄(1606~1664), 李休徵(1607~1677), 申濡(1610~1665년)와 함께 ‘小北八文章’으로 일컬어진 인

1) 남윤수, 『滄溟 南翎의 生涯와 文學 : 小北八文章之一人』, 『고서연구』 권18, 2001, p.347.

물이다. 소북 중에는 ‘七學士’, ‘八文章’, ‘五君子’라고 하여 문학과 행적이 뛰어난 인물이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들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들 중에서 특히 창명은 澤堂 李植(1584~1647)이 ‘대제학을 맡을 솜씨’²⁾라고 언급한 것에서 볼 수 있듯 뛰어난 문학 적 역량을 지닌 인물이었다. 또한 창명이 속해있는 소북팔문장은 詩壇을 형성하여 서로 문학적으로도 교류를 이어간 정황을 확인할 수 있기에³⁾ 이들의 시단 활동 및 개별 문인의 시세계를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이 글이 소북팔문장 중 한 문인인 창명의 시세계를 밝혀내는 첫 걸음이 되길 바라본다.

이에 필자는 본격적으로 창명의 만시를 살펴보기 위해 2장에서는 형식과 대상에 따라 분류함으로써 창명 만시의 양상을 개괄해 보고자 한다. 이후 3장에서는 창명 만시에 드러난 애도의 형상화 양상을 몇 가지로 나누어 논의하도록 하겠다.

II. 滄溟의 삶과 挽詩 개관

滄溟 南翎은 소북팔문장으로 일컬어진 문인 중 한명이나 지금까지 연구된 바가 거의 없으므로 창명의 삶의 계보를 재구성⁴⁾해보는 것이 어떤 연구

2) 『竹堂集』 卷14, 『通政大夫 守慶尙道觀察使 兼兵馬水軍節度使 巡察使 南公墓誌銘』, ‘李澤堂嘗見其文曰, 眞典文衡手也.’

3) 『滄溟遺稿(乾)』, 『別泥翁南觀』, ‘海內吾兄弟, 詩壇早結盟(眞卿)’

4) 생애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로는 『北譜』, 申濡의 『竹堂集』에 실린 『通政大夫 守慶尙道觀察使 兼兵馬水軍節度使 巡察使 南公墓誌銘』, 『祭南伯圖翎文』이 있으며, 『滄溟遺稿』에 생애를 추측할 수 있는 글들이 있어 이를 바탕으로 논의 하되 남윤수의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면밀히 구성해보고자 한다.

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창명의 삶을 조명해 보는 작업을 선차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다.

滄溟 南翮은 1609년(광해군1)부터 1656년(효종7) 11월 4일까지 48년간을 살았던 인물이다. 본관은 宜寧, 자는 伯圖이며, 호는 滄溟인데 작명 동기나 내용에 관해서는 알 수 없다. 창명의 증조부는 南瑋, 조부는 南以信, 부친은 監司 南斗瞻(1562~1635)이다. 모친은 淸州 韓氏(1590~1614)이며, 외조부는 韓應寅, 처부는 權峴이다. 창명은 1609년(광해1) 첫째로 태어났으며, 아우는 南翮(1612~1629)인데 일찍 죽었고 여동생은 소북팔문장 중 한명인 朴守玄(1605~1671)과 혼인하였다.⁵⁾ 또 다른 형제로는 光州 金氏인 後母 아래 태어난 南翊, 南翹, 南翽이 있고, 여동생들은 李成翼, 崔永世, 曹夏長, 金弼相과 혼인했다. 창명은 7남 1녀를 두었는데 南聖熏, 南景熏, 南尙熏, 南益熏, 南五熏, 南致熏, 南至熏이며 사위는 李弘期이다.

1614년(광해6) 6세에 모친이 돌아가자 창명은 조모의 양육 아래서 자란 것으로 보인다.⁶⁾ 1630년(인조8) 22세로 庚午 式年 司馬試에 生員 3등으로 합격했으며, 1633년 25세에는 부친 南斗瞻이 南原府使를 역임했기에 남원 지역에서 머물렀다. 1636년(인조14) 28세 무렵에는 別試 文科에 乙科 2등으로 급제하였고, 1639년(인조17) 31세에는 光州 金氏인 後母가 돌아가셨으며, 1640년(인조18) 32세 때는 작은 할아버지 南以恭(1565~1640)이 돌아가셨다. 1641년(인조19) 33세로 正言이 되었고, 典籍, 兵曹佐郎, 司諫院正言, 弘文館副修撰, 經筵檢討官, 春秋館記事官, 兵曹正郎, 知製教를 지냈다. 그러나 그해 11월 창명은 「辭正言疏」를 제출하여 正言을 사직하기를 아뢰었다. 창명은 상소에서 병이 점점 심해지고 어깨통증,

5) 姜栢年, 「南斗瞻의 묘갈명」, 『국역 국조인물고』 권25, 1999.

6) 『滄溟遺稿(乾)』, 「正言時避嫌」, “臣誠無祿, 早失所恃, 祖母收育以至成立, 恩同母子, 未嘗違離.”

담으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음을 밝혔고, 그에 따라 遞差하라는 비답이 떨어졌다. 1642년(인조20) 34세 平安都事, 禮曹正郎, 修撰, 校理를 역임했으며 4월에는 부수찬을 사직하는 상소인 『辭副修撰疏』를 올렸다. 그 후에도 창명은 부수찬의 체직을 요청하는 상소인 『乞遞副修撰疏』를 올렸으나 1644년(인조22) 4월에 반려되었다. 1644년 36세부터 2년간 仁川에서 유배 생활을 했고, 1647년(인조25) 39세 때 堂上官에 올라 同副承旨에 이르렀고 戶部右侍郎, 左副承旨를 지냈다. 1648년(인조26) 40세에 驪州牧使를 지냈으며, 41세에는 승정원에 들어갔다. 1650년(효종1)에 黃海道觀察使로 祭文 『牛耳山祈雨文』을 지었다. 이 시기 海州按察使도 역임했다. 1652년(효종3) 44세에 右副承旨, 韓山郡守를 지냈고, 1653년(효종3) 45세에 忠州牧使를 재직하면서 祭文 『楊津祈雨文』을 지었다. 1654년(효종5) 46세에 右副代言, 右承旨, 左承旨를 거쳐 禮曹參議에 제수되었다가 兵曹參議로 체직되었으며, 1655년(효종6) 47세에는 安東府使를 거쳐 慶尙道觀察使를 맡았다. 『乞遞疎』를 보면 창명은 7월 경상감사로 있을 때 체직을 요청하는 소를 올렸음을 알 수 있다. 창명은 이전에 황해도관찰사로 있을 당시 중국 사신들이 계속 내왕하여 일년동안 쫓아다니며 역참에 기거해 수도병이 들었고 완치되지 않았음을 토로했다. 그에 따라 현재 시력과 청력이 떨어지고 기억을 잃었다고까지 언급했다. 1656년(효종7) 48세로 부친상을 치르다가 병이 심해져 11월 4일 생을 마감하였다.

다음으로 창명의 시세계를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153수의 작품이 남아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중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만시는 118수, 즉 77%에 육박하는 양적 비중을 가지고 있다.

만시 형식	七言絶句	五言律詩	七言律詩	七言排律
시제	4	28	75	5
작품 수	6	28	79	5

표에 드러나듯 형식상으로 분류해 보면 창명의 만시는 七言絶句 5%, 五言律詩 24%, 七言律詩 67%, 七言排律 4%의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창명은 만시를 창작함에 있어 七言律詩를 가장 선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인지 絶句보다 律詩의 비율이 압도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만시라는 장르성에서 기인된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다. 창명의 만시 작품을 시제별로 정리해 보면 아래 표와 같다.

滄溟 南翎 挽詩 分類表

연번	제목	수량	형식	대상/관향
1	挽申秀才溪	3	칠언 절구	신운/고령
2	挽李司果文龍	1		이문룡/청안
3	挽韓進士聖典	1		한성여/청주
4	挽鄭直長鳴謙	1		정명겸/초계
5	挽金參議夫人	1	오언 율시	김참의의 부인/미상
6	挽慶鳳山信後	1		경신후/미상
7	挽鄭坡州大夫人	1		정파주의 대부인/미상
8	挽李秀才士深	1		이사심/전주
9	挽沈善山夫人	1		심선산의 부인/미상
10	挽趙司諫弟	1		조사간의 아우/미상
11	挽權靈山正中	1		권정중/미상
12	挽宋掌令希進	1		송희진/미상
13	挽徐石城	1		서석성/미상
14	挽李同知樹元	1		이수원/미상
15	挽李監司碩達夫人	1		이석달/전주/의 부인
16	挽李持平克仁	1		이극인/연안
17	挽柳奉事廷琦	1		유정기/전주
18	挽趙持平公淑	1		조공숙/평양
19	挽嚴參奉可誠	1		엄가성/영월
20	挽梁生員振翮	1		양진핵/미상
21	挽丁奉事彥瑜	1		정언유/미상

22	挽晉陽君柳孝傑夫人	1	오언 율시	유효걸/전주/의 부인
23	挽李司果文龍	1		이문룡/미상
24	挽白進士尙賓	1		백상빈/미상
25	挽兪秀才槩	1		유개/미상
26	挽成永平信耆	1		성신구/창녕
27	挽李參奉四亮	1		이사량/미상
28	挽李瑞興	1		이서흥/미상
29	挽金僉知光翼	1		김광익/미상
30	挽沈察訪	1		심찰방/미상
31	挽李昌平幼洙	1		이유수/미상
32	挽申兵使景珍	1		신경진/미상
33	挽宋學諭猷吉	4		송헌길/여산
34	挽宋學諭內	1		송학유의 아내
35	挽鄭慶州大夫人	1	정경주의 대부인	
36	挽南兵使以興大夫人	1	남이흥/의령/의 대부인	
37	挽金安岳	1	김안악/미상	
38	挽吳監司翻	1	오숙/해주	
39	挽吳龍潭瑛	1	오전/동북	
40	挽崔秀才灑	1	최익/미상	
41	挽麟城君李佑	1	이우/미상	
42	挽李監司	1	이감사/미상	
43	挽柳掌令	1	유장령/미상	
44	挽朴僉知希賢	1	박희현/밀양	
45	挽韓監役振遠	1	한진원/미상	
46	挽沈直講魯大夫人	1	심노/풍산/의 대부인	
47	挽張都事暎	1	장환/홍성	
48	挽吳監司大夫人	1	오감사의 대부인/미상	
49	挽挽鄭平海文翼	1	정문익/초계	
50	挽羅水使	1	나수사/미상	
51	挽朴三宰	1	박동선/미상	
52	挽李留守	1	이유수/미상	
53	挽宋知事	1	송지사/미상	
54	挽朴延安	1	박연안/미상	
55	挽安正郎猷規	1	안헌규/광주	

56	挽李監司頌達夫人	1	철 언 율 시	이석달/전주/의 부인
57	挽陸參判	1		목참관/미상
58	挽李承旨	1		이승지/미상
59	挽尹緘山汝徵大人	1		윤여징/풍산/의 대인
60	挽權秀才諧	1		권해/미상
61	挽洪僉知	1		홍침지/미상
62	挽李佐郎泰運	1		이태운/전주
63	挽李晦叔	1		이회숙/미상
64	挽宋參議駿	1		송준/여산
65	挽淸州大夫人	1		청주의 대부인/미상
66	挽李承旨	1		이승지/미상
67	挽尹判書	1		윤판서/미상
68	挽申同福起漢	1		신기환/미상
69	挽徐知禮	1		서지례/미상
70	挽梁生員振翮	1		양진핵/미상
71	挽丁奉事彥瑜	1		정언유/미상
72	挽朴靈光	1		박영광/미상
73	挽李留守	1		이유수/미상
74	挽李進士鼎至內	1		이정지의 아내/미상
75	挽晉陽君夫人	1		유호걸의 부인/미상
76	挽李溫陽	1		이온양/미상
77	挽李二相德洞	1		이덕형/한산
78	挽李密陽	1		이밀양/미상
79	挽鄭錦山復吉	1		정복길/하동
80	挽春城祖母主	1		춘성의 조모/미상
81	挽白進士尙賓	1		백상빈/미상
82	挽吉城君	1		길성군/안동
83	挽任正善伯大夫人	1		임정선의 백대부인/미상
84	挽崔寧越魯詹	1		최노침/미상
85	挽丁兵使	1	정병사/미상	
86	挽陸監司性善	1	목성선/사천	
87	挽柳監司恒	1	유항/전주	
88	挽成永平信壽	1	성신구/창녕	
89	挽成佐郎時亮	1	성시량/창녕	

90	挽李天安夫人	1	칠언 을시	이천안의 부인/미상
91	挽申兵使景珍	1		신경진/평산
92	挽朴察訪瑗	1		박환/고령
93	挽李知事久澄	1		이구징/전주
94	挽嚴別坐聖者大夫人	1		엄성구/영월/의 대부인
95	挽兪監司省曾	1		유성증/기계
96	挽李參判民寔	1		이민환/영천
97	挽李進士汝治	1		이어흙/미상
98	挽朴都事晉	1		박진/미상
99	挽權夫餘	1		권부여/미상
100	挽鄭都事道榮	1		정도영/미상
101	挽韓平山振溟	1		한진명/미상
102	挽吳持平翮	1		오혁/해주
103	挽許參判啓	1		허계/미상
104	挽嚴永興槐	1		엄황/영월
105	挽許持平悅	1		허열/양천
106	挽李佐郎華封	1		이화봉/미상
107	挽黃洪州辰	1		황호/창원
108	挽李密陽惟達十六韻	1	칠언 배울	이유달/전주
109	挽尹監司知敬二十韻	1		윤지경/파평
110	挽李監司頌達	1		이석달/미상
111	昭顯世子挽詞	1		소현세자
112	挽朴參判魯二十六韻	1		박노/밀양

위 표에서 볼 수 있듯 만시는 창명의 시세계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작품을 살펴보기에 앞서 일반적인 만시의 장르적 특징을 논하고 창명의 만시가 어느 범주에 속하는지 고찰할 필요가 있겠다.

만시는 특정 ‘대상’을 회상하며 부재에 대한 그리움과 슬픔에서 파생된 ‘다양한 정서’를 ‘다양한 방식’으로 그려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선차적으로 ‘대상’이 누구인가를 파악해야 하는데, 최재남은 애도의 대상에 따라 悼亡, 哭子, 哭兄弟, 悼朋으로 나누었다.⁷⁾ 그러나 실제로 만시는 이

처럼 범주를 지형적으로 규정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가족·친척·친지·선후배·동료·친구에서부터 同鄉 혹은 他鄉의 안면 있는 인물이나 임금을 비롯한 왕족까지 만시의 창작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⁸⁾ 창명의 만시는 전술한 것과 같은 대상 외에도 知人の 大人, 夫人, 大夫人, 祖母까지 다루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여성을 대상으로 삼은 여타 만시의 경우 주로 자신의 아내나 자식에 한정된 반면, 창명의 만시는 창작 대상의 범위가 넓은 편이다. 그에 반해 哭子, 哭兄弟 계열의 만시는 보이지 않으며, 悼朋에 해당하는 선후배·동료·친구를 대상으로 하는 만시가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지인의 청탁으로 지어진 23%에 해당하는 代作 양상이⁹⁾ 포착되는데, 이 역시 悼朋 계열의 시가 대다수임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애도에서 말미암은 ‘다양한 정서’가 어떠한 것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최재남은 ‘悲嘆’, ‘鎮魂’, ‘稱揚’의 세 가지 층위로 만시를 논하였다.¹⁰⁾ 이 논의를 기저로 개괄적으로 고찰해보면, 창명의 만시에는 우선 悲嘆의 정서에 해당되는 작품이 포착된다. 그러나 창명의 만시에 담긴 감정은 걱정으로 치닫지 않아 슬픔이 담담하게 기술되어 있다는 특징을 지닌다. 따라서 슬픔을 탄식으로 토로해 내는 비탄에까지 이른다고 볼 수 없고 悲哀 정도로 규정할 수 있다. 또한 鎮魂으로 표상되는 위안의 정서를 지닌 만시가 포착된다. 稱揚의 정서를 내포한 만시도 보이는데 한 수 안에 서도 일부 몇 구절에서만 이 같은 정서가 드러난다. 이는 도학자들이 시 전 구절을 할애하여 망자가 추구했던 삶의 가치를 칭송하는¹¹⁾ 칭양 방식

7) 최재남, 『한국 애도시 연구』, 경남대학교 출판부, 1997, p.42.

8) 윤재환, 『玉洞 李鉉의 挽詩를 통해 본 朝鮮朝 挽詩의 일양상』, 『韓民族語文學』 65집, 2013, p.348.

9) 挽詩 分類表를 통해 118수 중 28수가 代作임을 확인할 수 있다.

10) 최재남, 앞의 책 p.48.

11) 윤재환, 앞의 논문 p.378.

과는 다르다. 따라서 창명의 만시는 ‘비에’의 감정이 주를 이루되 ‘진혼’의 양상도 일부 포착되며, ‘칭양’이 곳곳에 혼효되어 있다고 언급하는 것이 옳을 듯하다.

다음으로 만시에는 애도를 형상화 하는 ‘다양한 방식’이 존재하는데 창명은 만시를 창작함에 있어 다채로운 기법으로 애도의 감정을 진술하였기에 면밀히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만시가 가지는 정서는 일정 부분 획일적일 수밖에 없으나 그 감정을 구현해 내는 형상화 방식은 작가마다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창명만의 특징이라고도 볼 수 있는 애도의 형상화 양상을 다각도로 조명해 보고자 한다.

Ⅲ. 滄溟 挽詩에 드러난 애도의 형상화 양상

만시의 형상화 양상을 논의하기에 앞서 시기별 만시의 창작 양태를 살펴보면 고려 시대나 조선 전기에는 관습적으로 쓰이는 표현이나 의상을 이용하여 지어진 작품이 많고,¹²⁾ 조선 중기 이후에는 만시 창작이 본격화되고 관습화되면서 많은 수의 만시가 비탄에서 칭양 위주로 그 내적 정서를 바꾸었으며 상투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의례적 문화 양식으로 변모¹³⁾되었다.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야 애도의 감정을 개성적으로 표현한 만시가 등장하는데,¹⁴⁾ 조선 중기를 살았던 창명의 만시에서 이전 시기의 만시가 지닌 상투성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반성적 작시 활동을 지향한 점이 포착된다.

12) 안대회, 「특집 : 한국 한시와 죽음의 문제-조선 후기 만시의 예술성과 인간미-」, 『韓國漢詩研究』 3집, 1995. p.53.

13) 윤재환, 앞의 논문, p.350.

14) 안대회, 앞의 논문, p.57.

따라서 이 장에서는 滄溟 挽詩에 드러난 애도의 형상화 양상을 다음 세 가지 특징에 따라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는 사적 기억의 서사적 전개 양상으로 경험적 서사를 다채롭게 활용했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풍경 차용이라는 형상화 방식을 통한 애도의 감정 진술이 포착되는데 정서를 확장시켜 시적 여운을 안겨주고 있다. 세 번째는 위안의 시상 종결 방식을 통한 슬픔 극복 양상으로 망자의 넋을 위로하는 것으로 시상을 맺는 특징이 포착된다. 창명은 기본적으로 사적 기억을 활용해 진실한 만시를 창작했으며, 획일화된 비애감 표출 방식이 아닌 다양한 풍경 차용을 통해 만시의 상투성을 극복했다. 또한 사적 기억에서 추출한 망자의 삶을 바탕으로 위안적 종결 방식 여부를 결정하고 다양한 층위를 나누어 만시를 기술했다는 점에서 일면 의례성에서 탈피하였다. 이 같은 양상은 작품을 통해 자세히 논의하도록 하겠다.

1. 사적 기억의 서사적 전개

창명 만시의 가장 큰 특징은 사적 기억을 활용하여 만시를 지었다는 것이다. 그에 따라 공적 기억¹⁵⁾이 가지는 의례성을 탈피했으며, 경험을 전제로 했기에 여러 대상에 중복적으로 활용되는 상투적 用事 사용이¹⁶⁾ 적다. 창명의 작품은 망자와 작가가 생전에 맺어두었던 긴밀한 유대관계가 만시 창작의 전제가 됨으로써 진정한 의미에서의 만시 창작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¹⁷⁾ 만시는 회상과 재생의 장르이므로 그를 애도하는 모든 이의 마

15) 필자는 공적 기억을 사적 기억과 반대되는 것으로 사회적으로 대상을 평가하는 일반적인 시각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벼슬에 대한 칭양과 같은 것이 공적 기억 범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16) 김영수·김효정 『錦帶 李家煥 挽詩 研究』, 『동아시아고대학』 36집, 2014, p.154.

17) 윤재환, 앞의 논문, p.350.

음에 특정한 영감을 불러일으킬 때 의의를 가진다. 그 기억이 설령 작가만의 기억이고 다른 이들에게 공유된 기억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살아있는 작가를 통해 죽은 대상의 모습을 떠올리고, 작가를 매개로 하여 망자를 자신의 경험으로 옮겨와 자신 안에서 그려진 망자를 다시 소환한다. 그렇게 되었을 때 만시는 비로소 문학적으로 제 역할을 다했다고 볼 수 있다. 우리가 회상할 수 있는 것들은 대상이 생존에 했던 모든 파편들이지만 만시는 그 파편들의 일부로써 기억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창명의 만시는 일차적으로 사적 기억이 충분히 구현되어 있다는 점에서 진실성을 구비하고 있으며, 기억 차원에서 그의 존재를 일깨워주므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사적 기억이 배제된 만시는 기본적으로 대상을 회상할 수 있는 범위를 일정 부분 축소시킬 수밖에 없으며, 특히 청탁으로 지어진 만시는 잘 알지 못하는 대상을 일정한 형식에 끼워 넣음으로써 감동 결여와 문학성의 결핍으로 이어지게 된다. 창명의 만시에서도 물론 23%에 해당하는 代作 작품이 확인되나, 창명의 경우에는 시인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청탁한 이의 사적 기억을 함께 나누고 그 감정을 곡진히 담아냈다는 특징이 곳곳에서 포착된다. 代作 작품조차 관습적인 서사로 흐르지 않았다는 점이 오히려 창명의 문학성을 더욱 잘 보여준다고 생각되기에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다.

창명은 시의 전개 방식에 있어 경험적 서사를 다채롭게 활용하여 사적 기억을 충실히 구현했다. 시간적 순서대로 기억을 반추하거나 특정 기억을 나열하면서도 비애의 감정을 교차적으로 서술했으며 사적 기억으로 시상을 열었다.

結髮偏相識

젊은 시절부터 서로 돈독하게 지내며

仍蒙借宅恩

계속하여 그대 집의 은혜를 입었고

更隨諸子弟	다시 여러 자제들과 교류하며
常似一家親	늘 한 집안 식구처럼 지냈지
八袂渾如夢	팔십 평생 일이 모두 꿈결 같으나
重泉竟莫晨	황천에는 끝내 새벽이 오지 못하네
最憐菜舞地	가장 아련한 것은 색동옷 입고 춤추던 회갑연
花事正三春	때는 바로 꽃 피는 3월이었지 ¹⁸⁾

이 작품은 僉知 金光翼을 애도한 것으로 김광익의 생몰년이나 구체적 인 행적을 알 수 없다. 다만 이 시가 창명의 만시 중 사적 기억으로 점철되어 있는 대표적인 작품 중 하나이므로 김광익과 친분이 두터웠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1~2구는 김광익에게서 입은 후의를 회상하면서 기억을 반추하고 있는 부분이며, 3~4구는 창명이 김광익의 여러 자제들과도 교류했음이 드러난다. ‘一家親’이라는 시구에서 그들이 가족과 같이 여기며 지내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창명은 만시의 서두에 과거를 서사적으로 재현해 두고 있는데, 여기에서 기억은 망자를 기리는 중요한 요소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창명만이 가진 사적 기억이 서두에 포진되어 있기에 애도의 진실성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5~6구에서는 사적 기억의 회고에서 말미암은 감정을 토로하는데, 김광익의 삶을 ‘夢’으로 처리하는 동시에 황천에는 결코 새벽이 오지 못한다고 함으로써 죽음의 이미지를 그려냈다. 7~8구에서 창명은 상실에서 파생된 아픔을 언급하기보다는 가장 아련하면서도 그리웠던 순간으로 시상을 이동시키고 있다. 그 시점은 김광익의 회갑 날이며, 김광익이 기뻐했던 바로 그때이다. 창명은 가장 아름다웠던 시간 속 기억과의 조우를 통해 애도의 폭을 확장시키고 있다. 슬픔을 직접적으로 표상하는 시어를 한자도 두지

18) 『滄溟遺稿(乾)』, 『挽金僉知光翼』.

않고 오히려 그와 상반되는 ‘花’, ‘春’이라는 풍경을 떠올리고 있지만 아름다운 순간이 현실과 대비됨으로써 비에는 더욱 확장된다.

弱歲騷壇早結盟	약관의 나이에 詩壇에서 일찍이 친교를 맺어
共將膠漆托深情	함께 교칠처럼 깊은 정을 나누었지
人間榜喜黃金出	인간계에서 기쁘게도 과거 급제 했으니
天上樓驚白玉成	천상계에서 놀랍게도 백옥루를 이루겠지
南郭煙花詩百首	따뜻한 봄날엔 남곽에서 백 수의 시를 읊었고
東湖風雪酒千觥	눈보라 치는 동호에서 천잔 술 비웠지
淒涼往事憑誰問	처량하구나 지나간 일 누구에게 물어 보리오
淚洒山陽一笛橫	들려오는 산양의 피리소리에 눈물만 주르르 흐르네 ¹⁹⁾

이 만시는 學諭 宋獻吉(1606(선조39)~?)²⁰⁾을 애도하면서 쓴 七言律詩 4수 중 3번째 작품이다. 4수 모두 창명의 사적 기억이 풍부하게 반영되어 있으나, 이 작품에서는 특히 시단에서의 교유 양상이 포착되기에 분석할 필요가 있다. 만시의 대상인 송헌길은 소북계 인물로 확인되며, 만시를 통해 보았을 때 아주 가까운 사이였음을 추측할 수 있다. 2번째 수에서 ‘三世神交三歲長’라고 하였으니 송헌길은 창명보다 3살 연상이었으며, 몰년은 미상이나 4번째 수 중 ‘誰料吾生三十未, 卽看知己半重泉’이라는 시구를 통해 볼 때 송헌길이 30세 이전에 세상을 떠난 것으로 사료된다.

1~2구는 어린 시절부터 이어온 교유의 기억이 담겨 있으며, 부레풀과 옷나무의 칠처럼 두터운 우정을 맺어왔음을 말하였다. 사적 기억을 슬회함으로써 만시의 대상과의 관계를 밝히고 있는데 이는 만시의 진정성을 부여

19) 『滄溟遺稿(乾)』, 『挽宋學諭獻吉』.

20) 宋獻吉의 본관은 礪山, 자는 微之이며, 증조부는 宋崱, 조부는 宋言愼, 부친은 宋駿이다.

하는 장치로 작용한다. 3~4구에서는 인간계와 천상계를 대비적으로 표현 하면서도, 과거 급제와 백옥루를 언급하여 송헌길의 뛰어난 문학적 재주를 담아내고자 했다. 5~6구에 이르면 사적 기억이 증폭되는데 구체적 장소와 시기 그리고 행위가 구현되어 있어 그 때의 추억을 완연하게 떠올리게 한다. 각 구절은 장면화 되어 있는데, 5구는 南郭에서 봄을 완상하고 그 아름다운 풍경을 마주하면서 시를 읊었던 기억을 떠올린 것이고 6구 역시 東湖에서 눈보라 칠 때 서로 술잔 기울였던 지난날을 한 폭의 그림처럼 옮겨 두었다. 7구는 사적 기억을 반추함에 따라 밀려오는 개인적 슬픔과 결핍이 시상을 지배하고 있는데, 의문형 시구에서 작가의 서글픔이 잘 드러난다. 8구에서는 처연함을 이기지 못한 작가의 정서가 ‘淚洒’로 직접적으로 표상되어 있다. 또한 向秀와 嵇康의 고사가 담긴 ‘山陽의 피리소리’라는 用事를 통해 벗을 그리워하는 정서를 극화시키고 있는데, 창명은 전고를 차용함에 있어서도 사적 기억과 부합하는 내용을 시에 포진시키고자 했다.

君今眞死非眞事	그대가 진정 떠났으나 정말 떠난 것은 아닐텐데
挽紙胡爲在我床	부고를 알리는 글이 어찌하여 내 책상에 있는가
不見容顏纔屬耳	얼굴 보지 못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誰知存落卽摧腸	생사에 애간장 끊길 줄 누가 알았으랴
百千世變來無盡	헤아릴 수 없는 세월의 변화 무궁한데
四十年光去太忙	지나간 사십 년 인생은 너무나 빠르구나
堂有爺孃室妻子	집에는 부모님 계시고 처자 있으니
魂如不味魂應傷	영령이 거기 있다면 응당 슬퍼하겠지 ²¹⁾

이는 正郎 安獻規(1598(선조31)~?)²²⁾를 위한 七言律詩 형식의 만시

21) 『滄溟遺稿(乾)』, 『挽安正郎獻規』.

22) 安獻規는 본관은 廣州이며, 李山海(1539~1609)의 외손으로 1635년 문과 급제 후

작품이다. 안현규에 관해서는 정확히 알기 어려우나 北人の 영수였던 李山海(1539~1609)의 외손이었음을 확인하였다. 창명보다는 11살 연상이었으며, 물년은 확인되지 않으나 위 시를 보았을 때 40여년을 살았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 작품은 사적 기억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서사의 역동성이 가미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1~2구는 현재 시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창명이 그의 부재와 단절을 인정하려 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구가 연속성을 지향한다면 2구는 ‘挽紙’를 통해 단절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1구와 2구가 대비적으로 제시되어 있어 애도의 정서는 더욱 심화된다. 3~4구는 사적 기억을 환기하는 동시에 자신의 비애감을 ‘摧腸’으로 드러냈다. 5~6구는 지난 세월과 앞으로 다가올 시간을 대조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죽음 앞에서 짧게만 느껴지는 안현규의 지난 삶을 한 구절로 집약시켰다. 7~8구는 비애감을 느끼는 주체를 만시를 짓는 작가에서 애도의 당사자인 안현규로 옮겨두었는데, 이는 작가가 망자의 슬픔 속에 자신의 비통한 심정을 간접적으로 담아낸 것이다. 작가가 개인의 감정을 직접 드러내거나 가족 혹은 주변 인물들의 감정을 빌려 비애감을 고조시키는 경우는 흔히 보이지만, 작가가 망자의 정서를 대신 말하는 방식은 독특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망자의 비통함을 대신 전해줌으로써 청자로 대변되는 애도하는 이들과 유가족의 정서를 더욱 강화시키고 있다.

이외에도 창명은 대체로 사적 기억의 서사적 표현을 만시 서두에 안배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작품 전체의 시작을 알리는 전체의 기능을²³⁾ 하게 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다음 시에서는 창명의 만시에서 해당 부분만을 발

兵曹正郎을 역임했다. 외조부 이산해는 北人 중에서도 大北이었으며 骨北의 중심에 있던 인물이었다.

23) 전재강, 『寒岡 挽詩의 성격 연구』, 『국어교육연구』 46집, 2010, p.254.

취하여 특징적 면모를 살펴보겠다.

(1)

槐院會同席	승문원에서 일찍부터 함께 지냈고
城西久接隣	도성 서쪽에서 오래 이웃하며 살았지 ²⁴⁾

(2)

厚義從先世	선대 때부터 의가 두터워서
論交兩不疑	서로가 의심 없이 교류하였지 ²⁵⁾

(3)

夙歲追陪久	어려서부터 뒤따라 모신지 오래되었고
逢場共一樽	만날 적마다 함께 술자리를 가졌지 ²⁶⁾

먼저 만시(1)은 持平李克仁(1602~?)²⁷⁾을 대상으로 한 五言律詩 중 1~2구를 발췌한 것이다. 사적 관계를 밝히고 사적 기억을 시 전면에 배치함으로써 시상을 열고 있음을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극인은 1635년 33세 무렵 과거에 급제하였고 창명은 1636년 28세에 문과에 급제하였음을 미루어보았을 때 이들은 그 이후 승문원에 함께 등용되어 교류하였다. 처음 만나게 된 연유를 서두에 기록함으로써 창명은 그 뒤에 읊을 내용에 진실성을 가미하고 있다.

다음으로 만시(2)는 奉事柳廷琦²⁸⁾를 대상으로 한 五言律詩의 1~2구

24) 『滄溟遺稿(乾)』, 『挽李持平克仁』.

25) 『滄溟遺稿(乾)』, 『挽柳奉事廷琦』.

26) 『滄溟遺稿(乾)』, 『挽李昌平幼洙』.

27)李克仁의 본관은 延安, 자는 士安, 호는 松汀이며 해남 출신이다. 國衡의 증손으로, 조부는 後白(1520~1578)이고, 아버지는 別坐 復古이다. 1635년(인조 13)에 宣教郎으로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으며, 1639년에는 持平에 이르렀다.

28)柳廷琦의 본관은 全州이며, 조부는 柳永慶(1550~1608)이다. 조부 유영경은 소북의 영수로 북인이 대북 소북으로 분당될 때 소북파의 영수가 되었고 남이공파의 불화로

에 해당한다. 유정기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으나 조부가 소북의 영수였던 柳永慶(1550~1608)이기에 창명과 같은 소북계로 선대 때부터 교유했음을 알 수 있다. 1구에 드러난 사적 관계는 애도를 점층화 하기 위한 도입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만시 (3)은 李幼洙(1591~1656)²⁹⁾를 애도한 五言律詩 중 1~2구를 옮겨온 것이다. 이 부분은 각인된 기억을 발견하여 시에 재배열 해둠으로써 존경의 의미를 담으면서도 함께 했을 때의 기억을 안배해 둔 것이다. 이유수에 대해서는 잘 알려진 바 없으나 昌平縣令으로 재임하며 백성을 아꼈기에 창명이 이유수의 죽음을 더 애달파 했던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살펴 본 것처럼 창명은 사적 기억의 진술을 중시하여 서사적으로 하나의 이야기를 시로 구현하고자 했다. 그러한 양상은 代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있는데, 이는 창명이 만시를 대신 써주길 부탁한 이의 사적 사연을 담아내려 애썼기 때문이다.

(1)

一忝臨瀛宰	외람되게 임영 부사로 갔을 때에
頻開湖海樽	바닷가에서 자주 술자리 가졌는데
夫人多淑哲	부인은 매우 현숙하고
法則儼閨門	閨門의 법도가 매우 엄숙하셨지 ³⁰⁾

(2)

結髮騷壇早識荊	상투 틀 무렵 시단에서 만나 알고부터
至今頭白托深情	흰머리 된 지금까지 깊은 정을 의탁했지 ³¹⁾

탁소북으로 분과한 인물이다.

29) 李幼洙는 昌平縣令 재임 시절 학교 응성과 인재 육성에 전념하여 백성들에게 칭송 받은 바 있다.

30) 『滄溟遺稿(乾)』, 「挽金參議夫人」.

만시 (1)은 代作이며, 金參議의 夫人을 애도한 五言律詩 중 1~4구를 발췌한 것이다. 代作임에도 불구하고 1~4구까지는 사적 기억이 재현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창명이 만시를 부탁한 이의 경험담을 활용하였으며, 청탁한 이가 회상한 부인의 이미지를 시로 구현해냈기 때문이다. 현속 함과 법도를 언급하는 것은 전형적인 면모이지만 이 같은 칭양이 사적 기억과 엮임으로써 진정성이 부가되었다. 만시 (2)역시 代作으로 柳掌令이라는 인물을 애도하여 七言律詩 2수를 지었는데 이 부분은 1수 중 1~2구에 해당한다. 이를 보았을 때 창명은 代作을 지을 때에도 사적 관계 속에서 파생되는 진실함을 중시했음을 알 수 있다.

2. 풍경 차용을 통한 정서의 확장 추구

창명은 만사에서 비애감을 표출하기 위해 크게 두 가지 방식을 사용하였다. 첫 번째는 직접적으로 곡진한 감정을 토로한 경우다. 창명은 만시에 ‘涕淚’, ‘揮涕’, ‘雙涕’ ‘沾巾’, ‘沾衣’, ‘悲’, ‘一吞聲’, ‘沾臆’, ‘沾纓’, ‘聲吞’, ‘哭’, ‘淚痕’, ‘慟’, ‘含情’이라는 시어를 안배함으로써 슬픔을 직접적으로 드러냈다. 이는 대다수 문인의 만시에 지속적으로 공존하는 양태라는 점에서 만시의 장르적 특징과 결부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특정 풍경을 차용하여 감정의 직접적인 서술 없이 풍경만을 시에 배치해 두었다는 것이다. 풍경 차용을 통한 애도의 정서 표출은 여운을 안겨주고 감정을 확장시키는 동시에 창명의 문학성을 여실히 드러내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더 나아가 풍경 차용 양상이 다채로운 양식으로 구성되었음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창명의 만시가 상투적인 의례성에서 벗어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풍경 이입 양상을 유형화하여 살펴보고 표현상의

31) 『滄溟遺稿(乾)』, 「挽柳掌令」.

미적 특질을 논하고자 한다.

첫 번째 유형은 인간의 유한함과 그에 대비되는 자연의 무한함을 진술하고자 한 것이다.

蓮榜會同籍	함께 과거에 급제하여
芹宮更托交	성균관에서도 같이 지냈지
侍從辭禁闈	대궐의 시종을 사직하고
閑適臥江郊	강교에서 한가롭게 지냈지
榮悴還如夢	고락은 도리어 꿈만 같고
生涯歎似泡	생애는 홀연히 거품 같네
傷心木溪宅	가슴 아픈 것은 목계의 집
春色上梅梢	매화가지에 봄 빛 깃든 것이라네 ³²⁾

이 작품은 趙公淑(1584년(선조 17)~?)³³⁾을 애도한 만시이다. 이 시 역시 사적 기억으로 포문을 열었으며 조공숙의 만년의 삶을 3~4구에 그려 넣었다. 5~6구에서는 ‘夢’, ‘泡’라는 시어를 선택하여 인생의 허망함을 드러냈다. 마지막 7~8구는 풍경을 차용하여 작가의 감정을 간접적으로 표현했는데, 여기에서 ‘春’은 일차적으로 현실과 대비적 느낌을 가진 시어로 침통함과 선명한 대조를 이룸으로써 슬픔을 극대화하고 있다. 더 나아가 봄은 계절의 추이를 대변하므로, 조공숙은 이미 사라지고 없으나 여느 때처럼

32) 『滄溟遺稿(乾)』, 「挽趙持平公淑」.

33) 趙公淑의 본관은 平壤, 자는 士善, 호는 蒼溪이다. 증조부는 趙慶雲이고, 조부는 趙仁得이며, 부친은 趙懋이다. 부인은 洪履祥의 딸이다. 1606년(선조 39) 식년시에서 생원 3등 34위로 합격하였고, 1624년(인조 2) 증광시 문과에서 을과 6위로 급제하였다. 1631년(인조 9)에는 正言에 임명되었고, 이후 持平 등을 역임하였다. 임금이 진노할 때 간언을 제대로 올리지 못했다고 자책하면서 사직할 것을 청원하였는데, 임금의 윤허를 받지 못하여 잠시 外職으로 물러나기도 하였다.

럼 이 공간에 봄이 찾아온다는 계절의 반복성 그리고 영원성을 읊은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봄은 무한함과 완전함을 상징하고, 그와 반대되는 인간의 삶은 유한함과 불완전함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망자한 사람의 생사를 읊었지만 풍경을 차용함으로써 정서의 범위는 삶의 본질에 대한 거시적 사유로까지 확산된다.

悠悠逝水終無極	유유히 흐르는 물은 끝내 다함이 없지만
草草浮生卽有涯	덧없는 뜬구름 같은 인생은 끝이 있구나
試向鷺梁江上望	시험 삼아 노랑진 강가를 바라보라
至今風浪夕陽時	지금도 석양 질 때 물결 일렁이니 ³⁴⁾

이 작품은 秀才 崔灑를 애도한 만시 중 일부분으로 七言律詩의 전구와 결구에 해당한다. 전구에서는 무한함을 대변하는 ‘水’와 유한함을 상징하는 ‘生’을 대비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애상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또한 전구에서 작자가 자신의 감정을 술회했다면, 결구에서는 한 폭의 풍경을 시 안으로 이입하고 있다. ‘試向’이라고 하여 작자는 망자를 소환하여 함께 풍경을 바라보자는 청유형 어미를 구사하고 있는데, 함께 바라보는 풍경은 슬픔이라는 감정을 동반한 情景일 수밖에 없다. 그 풍경은 다름 아닌 노랑진 강가인데 강은 자연의 무한함을 떠오르게 한다. 강은 망자가 떠난 오늘도 어제와 다름없이 일렁이는 모습 그대로의 항상성을 지닌 경물인 것이다. 이 풍경에는 석양지는 때라는 시간적 요소가 가미되어 있는데, 이는 원형적 상징으로 죽음의 심상을 형상화³⁵⁾한 것이다. 자연의 무한함이 시의 주된 풍경으로 자리 잡음으로써 인간의 유한함은 더욱 선명하게 다가온다.

34) 『滄溟遺稿(乾)』, 『挽崔秀才灑』.

35) 최재남, 앞의 책, p.197.

두 번째 유형으로 살펴볼 만시의 풍경은 작가의 슬픔을 반영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풍경들은 대체로 죽음을 암시하는 분위기를 자아내면서 작가 본연의 슬픔을 더욱 촉진시키는 작용을 한다고 볼 수 있다.

(1)

淒涼旅櫬還歸路 처량하게 객사하여 돌아오는 길
冷雨寒烟鎖廣津 광나루에는 싸늘한 비와 찬 안개만 자욱하네³⁶⁾

(2)

寂寞城西餘舊宅 적막한 성서에는 옛 집만 남아 있어
滿庭秋草正斜陽 뜰에 가득한 가을 풀에 석양 정녕 비치네³⁷⁾

(3)

香谷龜山瞻望近 향곡과 구산을 바라보면 아주 가까울 테지만
忍看衰草帶寒烟 찬 안개에 싸인 시든 풀을 어찌 차마 볼까³⁸⁾

(1)은 麟城君 李佑를 애도하는 작품으로 마지막 부분만을 발췌한 것이다. 이 만사에서 차용한 풍경은 죽음을 표상하는 배경인데, ‘冷雨’, ‘寒烟’은 시린 이미지들로 작가의 슬픔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는 吳監司의 大夫人을 애도한 작품으로 이 역시 마지막 구에 해당하는데 창명은 풍경을 차용함에 있어 시의 마지막 구에 배치하여 깊은 여운을 자아내고 있다. 계절적 배경으로 제시된 ‘秋’는 죽음을 대변하는 시어이다. 시간적 배경인 ‘斜陽’ 역시 죽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가을과 석양의 중첩이 비애를 고조시키고 있다.

(3)은 宋知事를 애도한 만시이며 代作이다. 창명은 대작을 지을 때에도

36) 『滄溟遺稿(乾)』, 『挽麟城君李佑』.

37) 『滄溟遺稿(乾)』, 『挽吳監司大夫人』.

38) 『滄溟遺稿(乾)』, 『挽宋知事』.

풍경을 차용함으로써 관습적인 창작에서 벗어나 문학성을 검비하고자 했다. ‘衰草’와 ‘寒烟’이라는 하강적이고 시린 이미지로 접철된 풍경을 제시함으로써 작가는 직접적으로 슬픔을 표상하는 시어를 한자도 두지 않으면서 짙은 애도의 정서를 담아내고 있다. 감정을 절제하려는 작가의 의식이 가미되어 있으면서도 시인의 감정에 의해 변이된 풍경의 굴절은 슬픔을 참지 못해 어쩔 수 없이 묻어나는 작가의 진실한 마음을 대변한다.

세 번째 유형으로 살펴 볼 작품들은 슬픔을 배가 시키는 장치로써 풍경을 차용한 경우다. 여기에서의 풍경은 죽음을 대면하지 않은 자연으로 표상되며, 작가의 심정과 확연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

(1)

池塘春草夢	연못가 봄풀이 꿈 같은데
何忍寫哀詞	어찌 차마 만사를 쓰겠는가 ³⁹⁾

(2)

惟有此心終耿耿	오직 이 마음만은 끝내 잊혀지지 않아
每隨槩月共分明	매번 집 위의 달빛 따라 함께 또렷하네 ⁴⁰⁾

(3)

送罷靈車頻悵望	상여를 전송하고 애달프게 보고 또 보는데
南州片月爲誰明	남쪽 고을 조각달은 누구를 위해 저리 밝은가 ⁴¹⁾

(1)은 秀才 俞槃를 애도한 작품으로 이 시에서 차용한 풍경은 ‘연못가 봄풀’인데 표면적으로 이는 작가의 감정을 수반하지 않은 대상이다. 이에 슬픔과 무관해 보이는 풍경을 차용한 듯 하지만, 봄이 도래한 줄도 모르고

39) 『滄溟遺稿(乾)』, 『挽俞秀才槃』.

40) 『滄溟遺稿(乾)』, 『挽權秀才諧』.

41) 『滄溟遺稿(乾)』, 『挽張都事喚』.

있다가 봄이 속절없이 지나가 버린 상황이 응축되어 있어 더 극적인 상실감이 느껴진다. 마지막 구에서 보이는 의문형 시구는 죽음을 현실적으로 직시하지 않으려는 작가의 심리를 반영하고 있다.

(2)는 秀才 權譜를 애도한 것으로 작가가 망자와의 단절을 심리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시에서 작가가 가져온 풍경인 ‘달빛’은 슬픔을 대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分明’함을 말하기 위해 차용된 것이다. 잊혀지지 않는 그 마음의 또렷함을 달빛과 함께 논하고 처연한 상태를 경물의 성질에 기탁함으로써 애도의 감정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3)은 都事 張暎을 대상으로 지은 만시로 작자의 심경과 상반되는 풍경을 시에 포진시키고 그에 대한 원망의 감정을 토로함으로써 비애를 선명하게 드러냈다. 작자는 상여를 전승한 뒤에도 애도의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頻’이라는 시어에 드러나듯 시선이 계속 그곳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마음을 제어하지 못한 작가의 비애감이 고조되는 그 찰나 8구에서 작자의 시선은 ‘片月’로 이동된다. 작가는 자신의 내면 정서와 상반되는 조각달을 책망하는 듯 한 전개를 개진하였는데, 이는 슬픔을 되새김질하게 하여 여운을 확대하고 있다. 이처럼 창명은 죽음과 상관없이 보이는 풍경을 시 안으로 이입시킴으로써 자신의 감정을 확장시키고 있다. 이 유형에서의 자연물은 죽음과 상반되는 이미지를 가지면서도 상실감을 수반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네 번째 유형은 슬퍼하는 주체를 작가 자신이 아닌 풍경으로 바꿔버림으로써 시적 여운을 확장시킨 경우다.

芝蘭寂寞終無實	자식 복 없어 끝내 결실이 없으니
秋日空山落木悲	가을날 텅 빈 산에 낙엽 진 나무도 슬퍼하네 ⁴²⁾

이는 李留守를 애도한 七言律詩의 결구를 발췌한 부분으로 작가가 자신의 감정을 직접 드러내지 않고 풍경을 빌려 대신 말하는 양상을 보인다. 창명은 芝蘭玉樹로 대변되는 후사가 없었던 망자의 삶을 애달파 했음을 볼 수 있지만, 작가는 자신의 목소리로 그 슬픔을 토로하지 않고, 경물로 하여금 대신 말하도록 시구를 구사했다. ‘秋日’, ‘空山’, ‘落木’은 그 자체로도 쓸쓸한 이미지를 겸비하고 있는데 ‘悲’라는 시어를 안배함으로써 ‘悲’의 주체를 ‘秋日空山落木’으로 만들었다. 풍경도 슬퍼한다고 읊음으로써 작가의 개인적 슬픔이 온 공간으로 확장되는 느낌을 자아낸다. 창명의 문학적 자질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이다.

3. 위안의 시상 종결 방식을 통한 슬픔 극복

우리나라에서 창작된 만시 가운데 鎮魂을 내용으로 한 만시는 찾아보기 어려우며⁴³⁾ 悼朋詩 범주라고 볼 수 있는 시들에서도 진혼 양상은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⁴⁴⁾ 그럼에도 창명의 만시 작품 가운데에는 悼朋詩 계열이면서 진혼의 범주에 속하는 작품들이 포착되기에 그 서사적 특징과 애도 양상을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창명은 주로 시의 후반부에 위안의 시상 종결 방식을 사용하여 애도를 형상화함으로써 슬픔을 극복하고 있다. 또한 사적 기억에서 추출한 망자의 삶을 바탕으로 위안적 종결 방식 여부를 결정하고 다양한 층위를 나누어 만시를 창작했다.

每憶干戈際

전란 때를 떠올려 볼 때마다

42) 『滄溟遺稿(乾)』, 『挽李留守』.

43) 안대회, 『한국 한시와 죽음의 소재』, 『韓國 漢詩의 分析和 視角』,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0, p.60.

44) 최재남, 앞의 책, p.132.

相將性命全	서로 목숨 온전하길 바랐는데
功名纔一宦	공명으로 겨우 벼슬자리 하나 얻어 놓고는
衰病奄重泉	쇠약하고 병들어 홀연 중천으로 떠났네
舊宅多秋草	옛 집에는 가을 풀이 무성하고
新阡鎖暮烟	새 묘역에는 저녁 안개 자욱하네
家聲傳玉樹	집안의 명성을 귀한 자제에게 전했으니
餘慶佇綿綿	남은 경사 끝없이 이어지리 ⁴⁵⁾

이 작품은 參奉 嚴可誠(1580~?)을 애도한 작품으로 엄가성의 자세한 생애는 알 수 없으나, 본관은 寧越로 창명보다 29세 많으며 34세인 1613년(광해군 5) 增廣試 생원 三等 24위로 합격한 인물이다. 이 시의 1~2구는 사적 기억으로 접철되어 있으며 전란 때를 회상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 시기 서로의 안위를 걱정해 주던 기억을 떠올림으로써 시상을 열고 있다. 3~4구는 엄가성이 병세로 인해 죽음을 맞이했음을 서술함으로써 그의 삶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5~6구는 풍경을 차용해 죽음을 그려내고 있는데, ‘舊宅’과 ‘新阡’이 대조를 이루면서 부재에 대한 비애감이 단적으로 드러난다. 더불어 ‘秋草’, ‘暮烟’이 표상하는 이미지는 작가의 슬픔을 반영하는 풍경 그 자체이다. 7~8구에서 창명은 엄가성을 위로하는 시상을 종결 방식으로 택하고, 집안의 명성이 이어질 것임을 말하여 망자의 걱정을 덜어주고 있다. ‘玉樹’와 ‘餘慶’이라는 부분에서 창명이 긍정적인 앞날을 만사에 담았음을 볼 수 있으며, 망자를 위로하여 슬픔을 극복하려 했음을 알 수 있다.

嶺外三年別 영외로 나가 이별한 삼년동안

45) 『滄溟遺稿(乾)』, 「嚴參奉可誠」.

悠悠兩地思	서로에 대한 그리움 아득했는데
那知還洛日	어찌 알았으랴! 서울에 오던 날
遽寫哭君詩	갑자기 그대의 만시 쓰리란 것을
萬事渾如夢	모든 일이 온통 꿈만 같으나
重泉更莫追	중천으로 간 것만은 다시 되돌릴 수 없네
故人差可慰	그나마 고인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은
餘慶在諸兒	남은 경사가 후손들에게 전해지는 일이라네 ⁴⁶⁾

이 만시는 成信耆(1586~1648)⁴⁷⁾를 애도한 代作이다. 위안의 종결 방식이 포착되는 동시에 진정한 애도라는 만시의 기능을 온전히 하였으므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성신구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으나 본관이 昌寧으로 소론계 인물이다. 창명의 문집에는 성신구를 애도한 대작과 창명이 지은 만시⁴⁸⁾가 각각 한 편 씩 수록되어 있고, 창명의 만시에 ‘臨詞細想平生義, 芳草東風涕自揮’라고 ‘평생의 신의’를 말했기에 창명과 친분이 있는 인물이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이 시는 代作임에도 불구하고 사적 기억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음을 1~2구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이별의 원인과 기간까지 구체적으로 표명되어 있으며, 절절한 그리움과 성신구의 죽음을 접하게 된 생경함이 그대로 담겨있다. 창명은 代作을 할 때에도 청탁한 이의 사정을 충분히 듣고 그 감정을 만시에 곡진히 담아내려 노력했던 것으로 보인다. 시상 종결부에서는 망자에게 위로의 말을 전달하는 동시에 마음의 안식을 제공하고자 했다.

46) 『滄溟遺稿(乾)』, 「挽成永平信耆」.

47) 成信耆의 본관은 昌寧이며, 증직은 贈嘉善大夫 兵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이다. 품계는 行通訓大夫이며, 永平縣令과 楊州鎭管兵馬節制都尉를 역임했다.

48) 『滄溟遺稿(乾)』, 「挽成永平信耆」, “天與吾人好惡違, 壽纔周甲位卑微. 去年爭歎荊花折, 今日還驚薤露晞. 堂上淒涼新粉字, 篋中零落舊緋衣. 臨詞細想平生義, 芳草東風涕自揮.”

이러한 위로는 성신구의 삶의 질곡을 마주한 작자의 진심 어린 연민이라고도 볼 수 있다. 실제로 창명이 성신구를 위해 쓴 만시에 ‘天與吾人好惡違, 壽纔周甲位卑微’라고 되어 있는데, 성신구가 세상일과 잘 어그러져 낮은 지위를 역임했기 때문이다. 성신구가 낮은 지위에만 머물렀기에 창명은 그 점을 위로하기 위해 후손이 번창할 것임을 말하여 망자의 넋을 달랜 것이다. 이에 창명은 시상 종결부에 위안의 메시지를 담음으로써 슬픔을 승화시키고 비애감을 극복할 수 있는 구조로 만시를 구성한 것이다.

진혼의 범주에 속하는 창명의 만시들은 앞서 살펴본 시에서도 드러나듯 유가족보다는 망자의 넋을 위로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양상이 모두 시의 종결부 배치됨으로써 위로로 시상을 맺는 특징을 보인다. 또한 사적 기억에서 추출한 망자의 삶을 바탕으로 위안적 종결 방식의 여부를 결정했다는 점에서 창명의 만시는 의례적 단계를 넘어섰다고 생각한다. 더 나아가 창명의 만시는 유형별로 위안의 층위를 나눌 수 있는데 이들은 미묘한 차이를 보인다.

(1)

粉書千載銘旌燠	명정의 흰 글씨는 천년 동안 빛날 것이며
惟有哀榮徹九泉	죽은 뒤 영에는 구천에까지 뚫을 것이네 ⁴⁹⁾

(2)

盛閥三從懿範傳	성대한 가문의 삼종지도 아름다운 범절 전해오니
大夫人德世無肩	대부인의 덕은 세상에 견줄 이 없고
存亡半世悲歎併	반평생의 흥망성쇠 슬픔도 참 많았지만
簪笏雙珠福祿全	두 아들 출세하여 복록을 갖추었지
政賀龜齡踰八秩	여든 살 장수하심에 정녕 하례 드렸었는데
卽看龍劍會重泉	중천에서 부부 만남을 이제 보게 되었네

49) 『滄溟遺稿(乾)』, 『挽吳監司翻』.

盈庭玉樹還堪託 뜰에 가득한 훌륭한 자손은 사랑할 만하니
餘慶方知後益綿 남은 경사 오래 전함을 알겠네⁵⁰⁾

(3)

高門懿德世無倫 명가의 아름다운 덕 세상에 드문데
擇配于歸婦道純 배필 택해 시집와서는 부덕을 갖추었지만
君子先違偕老約 해로하지는 약속을 어겨
餘生還是未亡人 남은 생애 되려 죽지 못한 사람일 뿐
雙珠繼隕終含慟 두 아들 잇달아 죽으니 한평생 애통함을 머금었고
七秩纔踰遽返眞 일흔 겨우 넘겨서는 갑자기 세상을 떠났지만
賴有孝孫能趾美 다행히 효성스런 손자 가성을 이었으니
佇看遺慶逮千春 남은 경사 천추에 전해지는 것 보겠네⁵¹⁾

위 시들은 모두 위안의 정서를 담고 있지만 유형별로 살펴보면 (1)은 七言律詩 첫 번째 수의 결구를 발췌한 代作으로 망자 그 자체에 초점이 맞춰진 만시이다. 망자가 사후에 공적으로 인해 받은 벼슬이 오래 기억될 것이며 ‘哀榮’을 논하여 망자가 잊혀지지 않을 것이라는 위안을 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에 반해 (2),(3)은 夫人을 애도했다는 공통점을 가지면서도 (1)의 유형과 달리 후손들을 말하여 망자의 근심을 헤아려주고 위안을 제공하는 구조로 기술되었다. 그러나 (2),(3)의 시들도 엄밀히 볼 때 다른 차원의 위로임을 확인할 수 있는데, (2)가 칭양에 가까운 진혼의 유형이라면 (3)은 진혼 그 자체로 미래에 초점을 두고 마지막 의지처인 현실을 강조하는 것이다.⁵²⁾

(2)의 만시는 任正善의 伯大夫人을 애도한 것으로 시 전문을 보면 대부

50) 『滄溟遺稿(乾)』, 『挽任正善伯大夫人』.

51) 『滄溟遺稿(乾)』, 『挽李天安夫人』.

52) 최재남, 앞의 책, p.111.

인의 인품과 덕을 칭송하는 것을 시작으로 두 아들이 모두 출세하였음을 말하였다. 또한 전구에서는 여든 살까지 장수하다 생을 마감하여 부부가 합장하는 장례를 치렀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전 정보를 바탕으로 결구를 보면 이 시의 위안의 정서는 칭양을 함유한 것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3)은 李天安 夫人을 대상으로 지은 것으로 만시에 드러난 부인은 삶을 반추해 보면 역경과 질곡으로 점철되어 있는 양상이다. 남편을 떠나 보내 미망인으로 살았으며 두 아들마저 먼저 생을 마감했다는 부분에서 여인이 겪은 난항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에 창명은 위안의 정서로 시상을 종결하고 있는데 이는 망자의 영혼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며 대상의 죽음이라는 충격적인 外傷에서 넋을 위로한 것이다.⁵³⁾

IV. 맺음말

지금까지 필자는 창명의 만시를 통해 그의 시세계 일면을 엿보고자 이 글을 기획했다. 창명의 시 작품 중 77%가 만시라는 특징을 보이기에 우선적으로 이에 관한 분석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여겼다. 이에 먼저 창명의 만시를 개괄하였는데, 悼朋 계열의 만시가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悲哀’의 정서가 주를 이루되 ‘鎮魂’과 ‘稱揚’의 양상이 혼효되어 있음을 살펴보았다. 창명의 만시가 대부분 사적 기억을 바탕으로 지어졌기에 ‘비에’가 주도적이며 ‘칭양’에 해당하는 정서가 적을 수밖에 없었으리라 사료된다.

다음으로 창명의 만시에 드러난 애도의 형상화 양상을 세 가지 특징에

53) 최재남, 앞의 책, p.105.

따라 고찰하였다. 만시의 문학적 성취를 결정하는 것은 어떤 정서를 담아냈느냐보다 어떤 형상화 방식을 사용하여 그려냈는가 하는 것에 달려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앞서 논의한 바 있듯 창명은 다채로운 방식으로 만시를 창작했다. 사적 기억을 활용함으로써 진실한 만시를 창작하여 만시의 지평을 넓혔으며, 획일화된 비애감 표출 방식이 아닌 다양한 풍경 차용을 통해 상투성을 극복했다. 또한 사적 기억에서 추출한 망자의 삶을 바탕으로 위안적 종결 방식 여부를 결정하고 다양한 층위를 나누어 만시를 기술했다는 점에서 의례성을 거부했다. 이렇게 본다면 창명은 애도의 정서를 문학적으로 표현해 내는데 유려했으며 조선 중기의 의례적인 만시 창작 경향에서 벗어나 반성적 작시 활동을 지향했다고 논할 수 있겠다. 또한 창명의 만시 중 代作이 23%나 되는 것을 미루어 보았을 때, 창명이 만시에 특장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창명의 시세계를 전체적인 틀에서 살펴보면 현재 전하는 작품 153수 중 118수가 만시이고 그 외 12수는 送別詩라는 양상을 보인다. 그에 따라 창명의 시문학은 애도와 이별의 정한으로 점철되어 있는 실정이다. 창명이 작시함에 있어 유독 만시 창작에 경도되었는지 의문이 드는데, 이 같은 경향성은 창명이 정치적인 욕구보다 문학 그 자체를 지향하는 성향이 짙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명성과 지위를 추구하기보다는 문학적 성취를 중요시하였기에 소북팔문장으로도 일컬어졌으리라 사료된다. 그러나 이러한 성향을 입증하려면 선차적으로 창명 문학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하기에 이 글에서 단정적으로 언급하기는 어렵다. 더 나아가 이 같은 면모는 정권에서 물러서 있던 소북계 문인들이 가지는 공통적인 특징이라고도 생각되는데, 이 역시 면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 같은 의문은 필자가 추후 소북팔문장으로 불리는 개별 인물들의 시문학 세계를 연구한 뒤 점차적으로 해명해 나가야 할 부분이므로 다음 연구를 기약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滄溟遺稿』

남선·김규선, 『滄溟遺稿』, 宜寧南氏直洞文集刊行會, 2004.

김영수·김효정, 『錦帶 李家煥 挽詩 研究』, 『동아시아고대학』 36집, 2014, p.154.

남윤수, 『滄溟 南翎의 生涯와 文學 : 小北八文章之一人』, 『고서연구』 권18, 2001.
p.347.

대동문화연구원, 『北譜』, 학자원, 2011, pp.1-366.

안대회, 『특집 : 한국 한시와 죽음의 문제 -조선후기 만시의 예술성과 인간미-』, 『韓國 漢詩研究』 3집, 1995, p.57.

_____, 『한국 한시와 죽음의 소재』, 『韓國 漢詩의 分析과 視角』,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0, p.60.

윤재환, 『玉洞 李敍의 挽詩를 통해 본 朝鮮朝 挽詩의 일양상』, 『韓民族語文學』 65집, 2013, pp.348-378.

전재강, 『寒岡 挽詩의 성격 연구』, 『국어교육연구』, 46집, 2010, p.254.

최재남, 『한국 애도시 연구』, 경남대학교 출판부, 1997, pp.42-197.

Abstract

Consideration of the Memorial Poems(挽詩)
by Changmung Nam Sun(滄溟 南翺)

Kim, Myo-jung

This writing is the first research of Changmung Nam Sun's(滄溟 南翺) condolatory poetry; trying to examine aspects of the imagery of condolence and clarifying meaning of it. Therefore, this author briefly illuminates the life of Changmung Nam Sun: a member of sobukpalmoonjang(小北八文章).

This author inquires out Changmung Nam Sun's poetic worlds through making a general survey of his consolatory poems. There are three characteristics of the imagery of condolence in his condolatory poetry. The first character of it, he uses his personal memories in his poem variously. The second feature of it, he expresses condolence through using the method of borrowing of the landscape. The last characteristic is the overcome of sorrow through the condolence. The end of his poem, he consoles the spirit of the deceased.

His poem is basically from his personal memories, so it expresses the sincereness in his poem. His condolatory poetry is differentiated because he uses the method of borrowing of the landscape to express condolence. His condolatory poetry is not conventional. Changmung Nam Sun's was able to create various condolatory poems because his poems were based on his personal memories; the life of the deceased.

Key Word : Changmung Nam Sun(滄溟 南翺), sobuk(小北), sobukpalmoonjang(小北八文章), memorialpoems(挽詩), sincereness, overcoming the hackneyed expression

김묘정

소속 : 단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전자우편 : 88131momo@naver.com

이 논문은 2016년 6월 30일 투고되어
2016년 7월 31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6년 8월 5일 게재 확정됨.

